



# 인천의 효차





효자(孝子)란 무엇일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들





이게 무엇일까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지게





인천의 효자는 “지계효자”

어떻게 지계로 효도를 했을까요?





## 인천의 “지계효자”





## 인천의 “지계효자”





# 朝鮮日報



단기 4342년 (음력 8월 25일 후9일)

chosun.com

52화 2006년 11월 23일 화요일

## 지계 효자 曲阜(취푸)를 감동시키다

2006. 11. 23

지난 8월 조선일보 독자면에 ‘이런 후배가 자랑스럽다’ 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실렸다. 이군익(41세)씨가 92세인 아버지를 ‘지계 의자’ 에 지고 금강산을 오르는 모습이였다. 생전에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아버지를 위해 이씨는 방석을 엮고 안전벨트까지 단 알루미늄 지계 의자를 만들었다.

지난 6월, 지계의자를 가지고 금강산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북측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하여 검사대를 통과하는데 북측 안내원이 “이것이 뭘네까?” 하고 물기에 설명을 했다. 그러자 북측 안내원도 호쾌한 목소리로 “통과하시라요!” 이씨는 15kg 지계에 43kg 아버지를 태워 만물상 턱밑 전망대까지 올랐다. 이씨의 윗몸은 온통 피멍이 들었다.

중국 취푸(曲阜)에 사는 교포가 감동을 받고 지난달 이씨 가족을 초청했다. 취푸는 孔子의 고향이자 孔子思想의 성소(聖所)다. 이씨는 아버지를 지계에 지고 泰山에 오르고 공자묘를 찾았다.

‘한국 효자, 취푸(曲阜)에 오다.’ 치루일보(齊魯日報)를 시작으로 방송사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이씨 부자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스스로를 닮는 징표로 삼겠다는 사람부터 ‘孔子’ 를 가르치는 공학관(孔學館) 교장까지 이씨를 만나러 왔다.

이씨의 지계는 요즘 인천 집, 조그만 정자에 놓여 있다. 정자 역시 작년에 어머니가 떠난 뒤 적적해진 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다. 7남매의 막내인 이씨는 “아버님께 어린 손주들 재롱을 보여드리려고 내가 고집해 모시고 있다” 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까 봐 지계 타기를 꺼리지만 아들은 지난 추석에도 아버지를 지고 덕유산 정상을 밟았다.

요즘 자식 따라 ‘관광’ 갔다가 버림받거나, 요양시설에 맡겨진 뒤 자식들이 소식을 끊는 노인이 한둘 아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가뜩이나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고려장(高麗葬) 설화에서 노쇠한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 버리는 바로 그 도구가 지계였다. 그런 지계를 이군익씨는 효심의 상징으로 바꿔놓았다. 어제 다시 조선일보 독자면에 한 교사의 편지가 실렸다. ‘공자마을 사람까지 감동시킨 지계 효행은 자라나는 세대에 귀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실 때에는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